

##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의 편린들 01] 삼국유사 <고조선> 기사에 보이는 단군의 신화

---

저자 (Authors)	허경진
출처 (Source)	<a href="#">기독교사상 701</a> , 2017.05, 179-189(11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대한기독교서회</a>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53022">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153022</a>
APA Style	허경진 (2017).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의 편린들 01] 삼국유사 <고조선> 기사에 보이는 단군의 신화. 기독교사상, 701, 179-18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8/22 11:44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의 편린들 01

# 『삼국유사』 <고조선> 기사에 보이는 단군의 신화

허경진 연세대학교 교수

## 우리나라에 창조신화는 없다

우리나라의 시조는 흔히 ‘단군’이라고 말하며, 단군의 탄생과 건국을 기록한 이야기를 ‘단군신화’라고 부른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신화는 없다.

신화(神話)란 글자 그대로 신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는 창조신화가 없으며, 따라서 창조신이 없다. 하늘의 해와 달을 만들고, 바다와 땅을 만든 신의 이야기가 없다. 단군신화도 창조의 이야기가 아니라 건국의 이야기일 뿐이며, 건국한 조상을 신으로 받든 것이다. 제주도의 설망대 할미 이야기도 우리 민족이 창조신화로 생각하지 않으며,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이야기도 창조신화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단군신화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가? 여기서 말하는 ‘신화’는 결코 전지전능한 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신은 없었다. 고구려의 동명왕신화, 신라의 박혁거세신화, 가야의 수로왕신화는 모두 전지전능한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운 사람의 이야기였다. 남다르게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굳이 ‘신화’라고 이름을 붙여야만 한다면, ‘신비하게 태어나 신비한 능력으로 한 나라를 세운 사람(동명왕·박혁거세), 또는 한 집안을 세운 사람(김알지, 석탈해, 제주도의 삼성혈)의 이야기’, 즉 창조신(創造神)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한 사람의 이야기’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 | 단군신화의 구조

단군에 대한 기록이 여기저기에 실려 전해지지만, 그 가운데 가장 오래된 기록은 고려시대에 일연(一然)이라는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의 <고조선>이 처음이다. 이 기록은 중국의 역사책인 『위서』(魏書)와 삼국시대에 지어졌을 직한 『고기』(古記)와 『당서』(唐書)의 <배구전>(裴矩傳)을 인용하여 엮여졌다. 그 이후의 기록들은 다시 『삼국유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들이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읽어보자. 편의상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다.

- 1) 『위서』에 이런 기록이 있다. “지금부터 이천 년 전에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있었는데, 아사달(阿斯達)에 도읍하고 나라를 열어 조선(朝鮮)이라 부르니, 요(堯)임금과 같은 시대였다.”
- 2) 『고기』(古記)에 이런 기록이 있다. “옛날 환인(桓人)의 서자 환웅(桓雄)이 있어, 자주 천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탐내어 구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세 군데 높은 산 가운데 태백산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 그래서 천부인(天符人) 세 개를 주고는, 인간 세상으로 가서 다스리게 했다. 환웅이 무리 삼천을 이끌고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神壇樹) 아래 내려와 그곳을 신시(神市)라고 이르니, 이를 환웅천왕(桓雄天王)이라고 한다. 그는 풍백(風伯), 우사(雨師), 운사(雲師)를 거느리고, 곡식, 목숨, 질병, 형벌, 선악을 맡아 다스렸다. 인간의 삼백 육십여 가지 일을 맡아, 세상에 있으면서 다스리고 교화하였다.”[\*이 부분은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내려다보니 세 가지 위험한 일(三危)이 있었는데, 태백산이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했다.”라고 번역하면, 뒤의 천부인 세 개를 이해하기가 더 쉬워진다.]

- 3) “그때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가 같은 굴에 살았는데, 늘 신웅(神雄)에게 빌면서, 변화하여 사람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신이 신령스러운 쑥 한 다발과 마늘 스무 개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만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곧 사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곰과 범이 쑥과 마늘을 받아서 먹고, 3·7일을 견디어 곰은 여자가 되었다. 그러나 범은 견뎌내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했다.

곰네(熊女)는 자기와 혼인할 사람이 없었으므로, 늘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배게 해주십시오.’ 하고 빌었다. 환웅이 잠깐 변하여 결혼하고 아들을 배어 낳으니, 이름을 단군왕검이라고 하였다.”

- 4) “단군이 요임금이 즉위한 지 50년 되던 경인년에 평양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고 일컬었다. 또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겼는데, 그곳을 궁홀산(弓忽山) 또는 금미달이라고도 한다.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주나라 무왕(武王)이 즉위한 기묘년에 기자(箕子)를 조선 제후로 봉

하자, 단군은 장당경(臙唐京)으로 옮겨갔다. 나중에 다시 돌아와 숨어 산신(山神)이 되니, 나이가 1908세였다.”

- 5) 『당서』 〈배구전〉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고구려는 본래 고죽국(孤竹國)인데, 주나라가 기자를 봉하여 조선이라고 했다. 한나라가 셋으로 나눠 군(郡)을 설치했는데 현토, 낙랑, 대방이다.”
- 6) 『통전』(通典)에도 역시 이 설명과 같다.

이상의 여섯 부분 가운데 5), 6) 두 부분은 단군신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중국 세력이 밀려와서 단군조선이 도읍을 옮겼다는 4)의 기록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중에 덧붙였을 뿐이다.

단군신화의 중심부는 〈고기〉의 기록이다. 이 〈고기〉가 글자 그대로 옛 기록이라는 뜻의 고기(古記)인지, 아니면 단군에 대한 기록, 즉 〈단군고기〉라는 고유명사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 기록 가운데 2) ‘환웅의 하강’, 3) ‘단군의 탄생’은 신화로 볼 수 있고, 4) ‘조선 건국’은 역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사의 끝부분에서 산신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단군의 신격화이다.

이 신화를 역사화하기 위해서 중국 최초의 임금(그나마 전설 속의 임금)인 요임금까지 등장했다. 구체적으로 연도까지 계산해서 경인년에 건국했다고 확실히 기록되어 있지만(일연은 요임금이 즉위한 해부터 다시 따져서 정사년이 맞다고 작은 글씨로 주까지 달았다.) 신석기 시대에 해당되는 이 시기의 계산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못박은 것은 오히려 신뢰감을 잃게 한다. 더구나 요임금의 실존 사실이 부정되면, 결국 단군신화의 허구성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기록할 당시에는 몽고의 침입 아래 우리 민족의 생존이 위태로웠으므로 주체성과 긍지를 살리기 위해 중국 최초의 임금과 같은 시기에 건국했다고 내세웠겠지만, 『위서』에 있는 것처럼 ‘지금부터 이천 년 전쯤’이라는 포괄적 기록이 오히려 신뢰감을 준다.

## 단군신화의 일차적인 해석

단군신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신화가 어떻게 지어졌는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단군고기>가 기록되기 전에도 이 신화는 많은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왔을 것이다. 이 신화를 처음 지은 사람이 한 개인인지 혹은 많은 사람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이를 처음 들었을 당시 사람들에게 의심없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바탕이 있어야만 한다. 즉 그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기억해 오고 있던 현실과 이 신화가 들어맞았기 때문에 사실로 여겨져 사람들은 의심 없이 믿었을 것이며, 단군을 무당이자 임금으로 받드는 사회가 구성되었을 것이다.

부족 전체가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동안 기억해 온 사실이 바로 집단기억이다. 이러한 집단기억을 소재로 해서 상상력과 표현력을 지닌 어느 한 사람(원시 서사시인, 어쩌면 무당 단군)이 재구성한 이야기가 바로 단군신화이다.

석기시대 원시인들은 짐승 사냥을 했고, 부족에 따라서 신성시하는 짐승, 즉 토템을 믿었다. 그들은 요동 반도나 만주 땅에서 1년 내내 짐승사냥을 할 수는 없어서, 1년 중 서너 달은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 추위와 눈보라를 피해 살아야만 했다. 그 동안은 싱싱한 고기를 먹을 수 없었기에 말린 고기나 딱딱한 열매를 먹어야만 했다. 이처럼 수천 년 동안 반복되어온 생활이 바로 이들에게 집단기억이 된 것이다.

이 지방에는 곰을 신성시하는 부족과 범을 신성시하는 부족이 살고 있었다. 물론 지신(地神)을 섬기던 이 부족들이 지금의 한민족과 같은 종족은 아니다. 그런데 북쪽으로부터 천신(天神, 일연은 이 신을 불교식으로 제석(帝釋)이라고 번역)을 믿는 알타이 계통의 한 부족이 따뜻한 남쪽을 찾아서 내려왔다.

새로운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온 이 무리는(삼천쫘 된다고 하자) 신석기 문화를 지닌 곰, 범 두 부족을 어렵지 않게 정복했다. 훨씬 우월한 청동무기를 지닌 이들이 힘으로만 두 부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신, 즉 환인의 자손이라고 내세움으로써 더욱 쉽게 정복한 것이다. 그러나 그 정복 과정에서 곰부족은 쉽게 적응하고 동화되었지만, 공격적이던 범부족은 적응하지 못했으므로 도태되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부족이 태어났다.

환웅은 곰과 범에게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라고 했다. 석기시대의 원시인들에게는 사냥을 못 하고 어두컴컴한 동굴에 파묻혀 살아야 하는 서너 달의 생활은 곧 죽음이었고, 새 봄이 되어 햇빛 비치는 동굴 밖으로 나가는 것은 곧 새로운 탄생이었다. 그 100일 동안은 평소에는 먹지 않는 말린 고기와 딱딱한 열매를 먹으며 참아야 했다. 100일이라는 기간은 글자 그대로 추운 겨울 서너 달이기도 하지만, 원시인들이 생각할 수 있던 가장 많고 완전한 숫자, 즉 ‘온(백) 날’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들은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 ‘온 날’(100일)을 참고 견뎌내야만 했다. 그러나 범은 이를 참지 못하고 뛰쳐나갔다.

곰이 21일을 견딘다는 이야기 또한 원시인들이 셀 수 있던 가장 큰 숫자를 가리킨다. 즉 손가락 열 개와 발가락 열 개보다도 하나 더 많은 숫자가 바로 ‘21’이었던 것이다. 물론 3·7일은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삶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첫 관문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나고 어른이 되며 결혼하고 죽기까지 각기 거쳐야만 하는 과정, 즉 통과의례가 있었다. 유교 예법의 ‘관혼상제’도 바로 그것이다. 소녀가 초경이 지나면 마을로부터 격리된 외딴은 집에 갇혀 살면서 시련을 겪고, 어른들이 치러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운 뒤에 시집을 갔다. 곰네(熊女)도 (어두운 동굴 속에서 쭉과 마늘만 먹으

며 3·7일을 견디는) 시련 극복의 과정을 거쳐서 시집을 가게 된 것이다.

곰네는 원래 짐승이었기에 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화 속에서도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짐승의 속성을 없애기 위해 마늘을 먹었다. 요즘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서 그 독성을 없애기 위해 마늘을 먹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물론 당시 한반도에 마늘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짐승의 고기가 마늘과 섞여서 사람의 몸이 된다는 이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건강한 여자가 되기 위해서 썩을 먹었다.

환웅족은 곰부족과 범부족을 정복하고 곡식, 목숨, 질병, 형벌, 선악을 맡아 다스렸으며, 나뭇대로 천신을 섬기고 있었기에 바람, 구름, 비까지도 주관하였다. 곰부족은 차츰 환웅족에 동화되어 서로 결혼하면서 새 부족을 탄생시켰다. 새로운 이 세대를 단군부족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 추장을 단군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곰부족은 이 단군신화가 자신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생활, 즉 집단기억과 맞아떨어졌기에 거부감 없이 이 신화를 받아들이고 믿었다.

## | 우리는 곰의 자손인가

우리가 곰의 자손이라고 하면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신화는 ‘그 당시 사람(신석기시대인)들의 세계관’인데, 그들이 곰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자신들의 모습과 비슷하면서도 조금은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진화론은 그때부터 있었던 셈이다. 시베리아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짐승 가운데서도 산토끼나 다람쥐를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았을 테니, 몸집이 크고 힘이 세며 의젓한

짐승을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곰과 범이 눈에 띈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곰의 생활이 훨씬 자신들과 가깝다고 느껴졌다.

곰은 자기들처럼 곧바로 서서 다닐 수 있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머리가 좋은 데다, 손을 쓸 줄 알았다. 게다가 추운 겨울에는 자신들처럼 사냥을 하지 않고 어두운 동굴 속에 틀어박혀 겨울잠을 잤다. 음식도 동물성, 식물성을 가리지 않는 잡식인 데다, 미련할 정도로 참을성이 강했다. 곰의 성격은 여러 가지로 그들과 비슷했다. 그들은 당연히 곰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며 신성시했다.

실제로 신석기시대에 시베리아에는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많았으며, 돌간족은 곰을 여자로 생각했고, 만씨인들은 곰을 숲의 여인이라고 불렀다. 야콥슨은 곰 숭배사상과 샤머니즘이 고아시아족의 특징이라고까지 말했다. 19세기의 과학자 다윈이 사람의 조상을 원숭이라고 주장한 것을 생각해보면, 원숭이를 보지도 못한 4,000년 전의 원시인들이 ‘우리들의 조상은 곰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눈에 많이 띄고 힘은 세지만, 곧바로 서지 못하고 겨울잠도 자지 않으며 식물성 먹이를 먹지 않는 범은 조상이 될 수 없었다. 21일도 참지 못하고 동굴을 뛰쳐나간 범이 ‘은근과 끈기’를 지닌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곰과 범이 힘으로 대결했다면 범이 이겼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환웅이 선택한 기준은 참을성이었다. 곰은 그 싸움에서만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생존경쟁에서도 범을 이겼다. 성질 급한 범은 그때 동굴에서 뛰쳐나간 뒤로 차츰 바뀌어가는 자연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하나둘 도태되어 갔다. 결국 현재 남한에서 범은 멸종되고 말았다. 신화 속에서의 승리는 결국 현실에서의 승리로 인해 진실로 판명되었고, 우리 민족은 승리의 민족이 된 것이다. 만약 우리가 범의 자손이었다면 중국, 만주, 소련, 일본 등의 강국과 정면으로 맞붙어 싸웠을 것이며, 사나운 범처럼 벌

써 멸족되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몽골족이나 만주족같이 한때 중국을 정복했던 주변의 소수 민족들이 지금 한족에게 동화되어 독립국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문자도 잊어버린 현실을 보면, 우리의 조상이 범이 아니라 곰이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 단군은 누구인가

환웅이 처음 신단수(神壇樹) 아래에 내려와 세상을 다스렸다고 하는데, 이 나무는 하늘과 땅, 즉 신과 사람을 이어주는 중개자이다. 단군이라는 이름이 무당이라는 뜻의 ‘당굴’에서 나왔다고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무당(또는 제사장)을 나타내는 ‘단’(壇, 제단)과 임금(君)을 나타내는 ‘군’의 합성으로 보는 견해도 많다. 즉 무당과 추장(임금)의 일을 함께 맡아보는 제정일치 사회의 통치자로 보자는 것인데, 이 경우에 ‘단군’은 일반명사이고 ‘왕검’은 고유명사가 된다. 그렇게 되면 단군이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거나 1,908세를 살았다는 것도 한 사람의 단군이 아니라, 첫 번째 단군인 왕검을 비롯한 몇십 명의 단군이 대를 이어 다스리고 살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화 자체로 받아들여야지, 실제의 역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규원사화』처럼 47대나 되는 단군의 족보를 만들어내고 그 후대 단군들의 업적을 꾸며대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임금이 단군왕검이라는 것만으로도 단군신화의 의미는 충분해진다. 그 시대에 없던 기록을 조작해가며 후대를 꾸며대다가는 오히려 단군신화 자체까지도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단군은 누구인가? 최초의 단군은 단군신화의 주인공인 동시에 작가이다. 단군신화를 ‘건국 서사시’로 본다면, 이것은 ‘서사시인’인 셈

이다. 제정일치 사회에서 제시는 아주 중요한 행사였으며, 가장 중요한 행사 때에는 밤을 지새워가며 굿판을 벌였다. 모닥불을 피우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굿판을 벌이다가 한밤중이 되면, 무당이 자기의 신통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 자리에 모인 부족민들에게 본향풀이를 들려줬다. ‘내 할아버지가 하늘에 있는 신 환인이며, 아버지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 이 세상을 다스리던 환웅이다.’라는 내용의 본향풀이는 석기시대 원시인들의 사고력과 상상력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그 정도의 신을 모신 무당이라면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그 본향풀이가 자기들의 집단기억과 꼭 들어맞았으니 거부감도 없었을 것이다.

이 단군신화는 처음에 단군부족만의 신화였고, 다른 부족들은 각기 다른 신화(동명왕신화, 박혁거세신화, 수로왕신화)를 믿었다. 이러한 신화는 입에서 입으로 몇백 년씩 전해졌다. 단군이 우리나라의 시조라고 해서 박혁거세가 꼭 단군의 후손이어야만 한다는 법은 없다. 삼국시대에 지어진 역사책이 지금 전해지지 않으므로 그 시대에는 어떤 관계였는지 알 수 없지만, 몽고의 침입을 받아 민족의 존속이 위태로웠던 1285년에 일연이 『삼국유사』를 엮으면서 그 첫머리에 단군신화를 실어 여러 갈래의 신화를 지녔던 한민족의 정신적 고향을 통일하고, ‘요임금과 동시대에다 천신의 자손’이라는 민족적 우월성을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단군신화는 그 이후에도 민족의 존망이 위태로울 때마다 부각되었다. 병자호란 후에 그러했고, 조선 말기에도 그러했다. 1904년에는 드디어 단군을 신으로 믿는 단군교가 성립되기까지 했다. 한민족의 우월성을 내세워야 한다는 민족적인 요구에 의해 단군이 구심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그래서 독립운동가 가운데 많은 이들이 대종교 신자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단군을 신으로 받드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어떤 대상을 신으로 받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통력이 있어야만 한다. 예컨대

천지를 창조했다든가, 전지전능하다든가, 민족을 위기에서 구해주었다는 정도의 신통력이 있어야 신으로 받들 만한 힘이 생긴다. 그러나 아무리 들여다봐도 단군신화에는 신통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껏해야 1,908세를 살다가 죽은 것뿐이다.

이 글의 의도는 단군의 실재를 부인하자는 것이 아니다. 고고학적 유물들이 차츰 발견되면서, 기원전 언제쯤인가 단군조선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물론 평양의 단군릉에서 최근에 발견된 유골이 단군 부부의 유골이라는 식의 고고학 자료까지 글자 그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말이다.

그러나 단군의 신성에 대해서는 단군신화를 채록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다. 일연의 『삼국유사』보다 2년 뒤인 1287년에 출간된 이승휴의 『제왕운기』(帝王韻記)에는 한민족의 시조가 곰네의 자손이라는 것을 꺼려 “환웅이 손녀로 하여금 약을 먹고 사람이 되게 하여 단군을 낳았다.”라고 수정하였다. 그 이후 유교 사회에서 지은 『세종실록』 〈지리지〉(地理志)에서도 합리적인 유교인의 발상에 의해 손녀설(孫女說)을 그대로 채택하였다. 이처럼 단군신화를 사람마다 제 생각대로 고쳐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뒤집어 본다면, 그 시대 사람들도 단군이 산신(山神)이 되었다는 기록을 그대로 믿지는 않았다는 뜻이 된다. **기상**

**허경진**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를 거쳐,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면서 시 〈요나서〉로 연세문화상을 받았고, 『허균평전』, 『중인』, 『사대부 소대현 호연재 부부의 한평생』 등의 저서와 『삼국유사』, 『서유견문』, 『택리지』 등의 역서가 있다.